

가사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김병국**

< 차례 >

1. 문제제기
2. 가사의 활용 양상
 - 2.1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 2.2 교육콘텐츠로의 활용
 - 2.2.1 가사를 활용한 글쓰기, 창의력, 비판적 능력 신장
 - 2.2.2 가사를 활용한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도 향상
 - 2.3 문학치료로의 활용
3. 가사의 활성화 방안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가사작품이 현대에 활용되는 모습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나름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가사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문화콘텐츠로의 개발, 글쓰기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문학치료 등에 가사를 활용하고 있다. 가사를 현재의 생활에 활용하거나 그 활성화의 경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가사 문학이 현대에 활성화되고 그 전통이 미래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보다 그 속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찾아 널리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한 방법이 바로 문화

* 이 논문은 한국가사문학관 15주년 개관 기념 '제15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2014년 11월 7일)에서 발표한 글이며, 그 글을 바탕으로 당시 토론자였던 이상원 교수(조선대)의 질의 내용을 수용하여 다듬었다. 이 글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해준 이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글의 제목은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가사문학진흥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것이다.

** 건양대학교

콘텐츠로의 개발이다. 이 경우, 지역과 관련 있는 가사 작품만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보다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콘셉트를 잡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사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담양’의 경우는 현재 담양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통으로 보아 자연과 인간의 교감, 자연과 (과학)문명, 전통과 현대의 공존, 예술과 놀이의 공존, 관람과 체험의 공존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는 것을 기본 컨셉트로 하고 지역민들이 담양이라는 지역, 문화, 전통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학문적으로 가사의 자료를 집적하고 그것에서 현재적 가치를 개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사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글쓰기 교육, 창의력 교육, 비판적 사고 교육 등에 가사 작품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에듀테인먼트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사에 대한 향유가 학교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현대에 가사도 시조처럼 일정하게 그것을 향유하는 계층의 존재가 필요하니, 그것은 우리가 생활의 표현수단을 하나 더 갖는다는 점과 그것이 오랜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나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가사, 활용양상, 활성화, 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1. 문제제기

가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 가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글은 궁극적으로 이 화두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사 작품은 고려 말 나옹화상(懶翁和尚)의 서왕가(西往歌)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오백년,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지금까지 창작되며 향유되고 있다. 이 장르는 그 자장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으나 이 오랜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오고 있다.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담당층, 형식, 담당층의 세계관 등의 변화를 다 포용하면서 우리의 숨결과 미감을 담아온 것이다. 담당층의 면에서 보면, 조선 초기 불승으로부터 사대부로 주된 계층이 이동을 하였고, 조선 중후기에는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양반 아녀자, 중인과 일반 서민으로까지 그 담당층이 확대가 되었다가, 해방 후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승의 명맥을 이어오게 되었다. 1997년 안동에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설립되어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2009년부터 전국내방가사 창작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0년 담양에 한국가사문학관이 세워져, 전국가사시조 창작공모전을, 2005년부터 전국가사시조낭송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가사의 담당층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형식면에서 보면, 4음보 무한 연속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 초기에는 음보 내의 음절수가 3·4조 4·4조를 중심으로 다소 자유로웠고 일부는 시조 종장의 영향을 받아 종장 첫구가 3음절인 가사가 생겨났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한 음보의 음절이 4·4조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시대마다 담당층의 변화가 생기며 가사가 담아내는 가치도 달라졌는데, 초기 불교사상을 담았던 가사는 조선 초기 사대부들이 주로 지으면서 강호의 삶, 기행의 회포나 유배의 심정, 인륜도덕, 연군 등 유학의 사상과 정서를 담았으며, 임병양란 이후 사회가 변화하여 여성과 서민들의 의식이 깨이자 일상생활 속에서 양반 아녀자를 비롯한 여성과 서민들의 삶의 고난과 회포, 생활양태 등을 포용했고, 동학, 천주교 등의 교리를 담기도 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애국계몽, 독립, 개화 등의 생각들을 담아냈고, 해방 후에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방(內房)의 일들을 담아내었다. 그리고 현재도 자신의 삶의 일상을 가사의 형식에 담아내는 일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사를 접하는 시기와 방식은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 당시 주입식 교육과 훈고주석 위주의 방식으로 인해 가사(고전)는 어려운 것, 현실과 동떨어진 것 등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조들의 삶의 숨결과 미감을 느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될 뿐, 실제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가사(고전)를 배우는 학생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학생들이 가사를 배우는 데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교육방법에 대한 것 외에도 우선 작품이 현대어가 아닌 고어(古語)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작품이 지어진 시대의 배경에 대한 지식 또는 식견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요즈음은 교수-학습 방법을 기존의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케 하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 가, 가사 문학에 대한 이해를 자기주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지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글쓰기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가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그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 문물을 동경하던 당시 개화기 지식인들의 전통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그 도도한 흐름을 이어왔던 가사 작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멀어지고 오늘날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일제식 교육과 해방 후 서구식 교육 방법에 따라 교육을 하면서 우리 것을 낮게 보고 서구의 것을 높게 보는 인식이 있었고, 당시 대학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 서구식 장르에 친숙하여 그러한 분야의 작품들을 주로 창작하고, 그 분들이 대학에 전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아울러 창작 문단을 주도한 점과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지어 주로 고전문학을 연구 분야로, 현대문학을 창작 분야로 인식하여 교육한 점

등이 그 주된 이유들이라고 생각한다. 시조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대표 시가 형식으로 선정되어 당시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오늘날까지 창작하는 풍토가 마련되었지만, 그러한 시조도 대학에서는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시조 창작은 동호인들의 유희 정도로 인식되어 서로 교류조차 거의 없었던 것인데, 근자에 조금씩 서로 교류도 하고 대학에서도 점차 현대시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가고 있다. 즉, 장르로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조를 다시 현재 살아 있고, 또 살아가는 장르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지어 내것 네것으로 갈라서 가르치는 것부터 없애야 하며, 고전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현대문학을 창작의 대상으로 고정화시키는 인식을 바꾸어 우리의 전통시가가 오늘날에도 창작되고 향유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고어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4음보 무한 연속체’의 기본 율격을 살린 현대의 언어로 적절하게 옮겨 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품들과 관련된 작가 연구, 작품의 배경에 대한 연구, 작품이 창작된 지역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가사 장르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감을 쉽게 담아내는 장르라는 인식과 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가사는 우리에게 살아 있는 장르로 다가올 것인가? 그 사이에 표현수단의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문자언어보다는 영상언어에 더 친숙한데,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문자로 기록된 것들이 없어지는 않을 테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가창, 낭송, 음영, 율독 등 구비 언어, 기록 등 문자 언어에다가 영상 언어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화콘텐츠’로의 개발이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지금까지 가사 장르를 활용한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현대 사회 나아가 미래사회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필자의 의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가사의 활용을 언급한 글들이 많지 않지만,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담양을 문화콘텐츠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사의 활용 양상

지금까지 가사의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로의 개발, 글쓰기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문학치료 등에 가사를 활용하고 있다.

2.1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우선, 최한선은 송강가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장한다.¹⁾ 송강이 비록 서울서 출생을 하였지만, 16세(명종 6년, 1551년) 때 담양(당시 창평)과 인연을 맺은 후 다섯 차례에 걸쳐 담양에 머물렀는데, 그러면서 담양의 인문학적 토대에서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송강의 문학적 재능을 개발하였으니, 담양에 머물 때 지은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과 담양에 머물다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가서 지은 <관동별곡> 등이 가사 네 편이 모두 담양과 관련 있다고 보면서, 송강이 담양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그러므로 담양은 그의 가사 작품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중국 선종 소림사의 음악대전, 일본의 유바라시, 중국의 대홍포차와 마연일기, 안동의 ‘원이엄마 편지’, 경주의 무녀도, 통영의 윤이상, 중국의 송성 천고정 등 지역의 특징을 문화콘텐츠화한 다른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의 방향을

1) 최한선, 「송강 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제3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요소에 창의력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결합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인 것이며,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문화산업은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한선은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학적 사고에서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역민이 지역에 거주하는 존재의의를 살리고 그들을 고품격 삶으로 인도하며 주민의 자긍심과 의지를 한 데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문화콘텐츠를 만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 지역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때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최한선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담양이 2018년 담양군 창설 천년이 되는 해이므로 천년 담양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 담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담양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담양 존재의 의의를 살리는 차원에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제작을 제안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 이미 수용자 층이 두텁게 확보된 송강가사 등 시가문학을 바탕으로 인문과 자연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융복합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여 담양의 역사, 누정의 고장, 시가문학의 산실, 청정과 생태의 청죽골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담양이 송강가사의 탄생지라는 점, 금성산성 등 문화유산, 담양의 누정과 시가 문학의 전통, 박상, 송순, 임억령 등 유명한 시인들의 생애와 업적, 몽성산, 추월산 등과 관련한 설화, 숙종 비로서 영조를 낳은 동이의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들이 훌륭한 극적 요소가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담양이 한국가사문학관과 연계하여 시가문학촌이나 시가문학공원 같은 문학 공간을 조성하여 그 안에 글쓰기 마을, 시가 문학관, 시가문학 인물실 등의 콘텐츠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담양 대나무 축제와 관련한 송강가사 콘텐츠화 사업을 제안하고 있으니, 매년 열리는 담양의 대나무 축제 때, ‘글쓰기 축제’를 하고, 또 2015년 담양에서 열릴 대나무 엑스포에서 송강가사 패러프레이즈 대회, ‘새로 쓰는 사미인곡’, ‘나의 속미인곡’ 등 가사와 한시를 포함하여 시가문학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 힐링(치유)과 셰어링(공유)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가문학의 음악화 내지는 미술화, 연극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강가사의 번역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유능한 번역자의 발굴, <면앙정가>를 필두로 송강가사 등 가사문학 자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의 등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송강가사를 포함해 담양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을 엮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자는 제안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형대는 기행가사를 기반으로 전자문화지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²⁾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개발 및 그 응용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향토문화대전>을 참고하여, 기존에 도면 상태로 존재하던 문화지도를 공간·시간·주체의 다차원적 입체구조로 확장하여 구성된 디지털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 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행자들에게 여행정보와 더불어 여행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심미적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자문화지도가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차원을 넘어서 연구시야의 확대와 탐색의 지평을 넓히는, 연구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 주제에 대하여 시공간적인 조건 속에서의 변동 양상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융합학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이질적인 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와 그 활용 방안을 창출하는데, 기행가사를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으로 구

2) 이형대, 「기행가사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구축과 그 활용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분야의 전문가, 주 텍스트인 기행가사를 다루는 한국고전문학 연구자, 조선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문지리의 변화에 밝은 역사지리학자, 그리고 컴퓨팅 정보처리 기법에 의거하여 전자지도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공학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통이 증대되는 융합의 시대인 21세기에 전자문화지도가 적합한 아이템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행가사를 전자문화지도로 만들기 위한 설계와 구축 방안으로 ‘대상자료의 범위-‘베이스맵’설계-교통로 복원-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DB 설계 및 텍스트 가공-참조정보 데이터베이스-타임맵 구현’이라는 개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문화지도를 통해 여행자들은 추상적인 문자언어를 넘어서 시각, 청각, 촉각 등 실감나는 가상체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풍광과 이에 대한 선인들의 상상력을 비교하면서 발견의 기쁨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행가사 전자문화지도가 특정 장소에 대한 문화적 기억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해나가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기행가사를 기반으로 이렇게 문화전자지도를 만들면, 학술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미시자료의 집적을 통한 거시적 변화나 주제 간의 비교 고찰, 또는 융합적 고찰 등이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여행을 할 때 여행지와 관련하여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심미적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백순철은 가사 작품 중 <화전가>류를 대상으로 그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³⁾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을 ‘자료의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작업,’ ‘고전시가의 현대적 텍스트로의 변용,’ ‘고전시가 콘텐츠 활용’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사인 <화전가>류도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 영역 중에서

3)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고시가연구』 제34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고전시가를 전시, 축제, 여행, 테마파크 같은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화전가>류를 주로 전시, 공연 등으로의 활용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⁴⁾

- 4) 백순철이 제시한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3단계인 교육연구 콘텐츠(자료의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작업), 대중매체콘텐츠(고전시가의 현대적 텍스트로의 변용), 사업정보 콘텐츠(고전시가 콘텐츠 활용) 중에서 우리 고전시가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한때 문화콘텐츠가 서서히 붐이 일 때쯤 많은 인문학(특히 국문학) 연구자들이 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화라는 표현에 그것이 인문학이 중심이 된다는 말에 인문학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초기 인문학도들은 스토리텔링 분야에 많은 노력을 들였었다. 그래서 우리 고전을 새롭게 스토리텔링화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이것을 문화콘텐츠화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고전작품을 미리 스토리텔링화하는 것은 거의 의미 없는 작업이다. 문화콘텐츠의 개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소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인문학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인문학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 융합 분야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경영학적 안목과 기획력, 인문학적 소재와 소양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IT 기술, 지식재산권 등 문화콘텐츠법과 같은 법학 지식이 인문학적 정신, 역량 못지않게 필요한 분야이다. 인문학 연구는 진리 탐구가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콘텐츠는 이것을 다른 분야의 역량과 결합하여 활용하는 분야이기에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고전시가 연구자가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가 우리 고전시가 연구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협조자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의 그리고 향후 미래의 문화 트렌드를 읽는 안목이 절대 필요하고, 여기에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량,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이해(영화,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전시, 출판 등), 이를 홍보와 마케팅 등의 방법에 대한 역량, 지식재산권 등 문화콘텐츠 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자로 참여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문화콘텐츠 전문가라는 말도 한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인문 정신은 이러한 전 과정의 기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인문학적 전문 지식과 소양,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 중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할 때 주로 필요한 역량이다. 두 번째 협조자로 참여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인문적 소재 발굴(콘텐츠 소스 발굴)과 이의 스토리텔링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문적 소재(설화, 소설, 역사 제도, 역사적 사실, 생활 방식, 도시 풍물, 의식주, 유불도 사상, 디자인

<화전가>류는 화전놀이를 통해 여성들이 해방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소통함으로써 마음의 상처 등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화전놀이 콘텐츠에 화전가의 이러한 면을 적극 접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화전가>류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을 위에 제시한 3단계로 살펴보고 있는데, ‘교육연구 콘텐츠로서의 화전가(자료의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작업)’를 다루면서, 자료의 집성에 비해 주석과 현대화 작업이 아직 미진함을 언급하였고, ‘대중매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고전시가의 현대적 텍스트로의 변용)’에서는 <텐동어미 화전가>를 소설로 쓴 <텐동어미전>을 다루면서 ‘공감과 연대의 서사’라는 원작 자체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사를 촘촘히 엮어나감으로써 고전의 현대적 변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화전가>류가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텍스트라고 보고 있다. ‘사업정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고전시가 콘텐츠 활용)’에서는 뮤지컬, 연극, 마당극 등의 공연이나 화전놀이라는 전통문화와 그 속에 보이는 음식, 의복 등의 생활요소와 같은 콘텐츠를 박물관이나 문학관을 통해 전시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오에스엠유(OSMU: One Source Multi Use)를 중시하므로 <화전가>류의 원데이터를 확보하여 주석과 현대역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상력, 창의력을 덧붙여 시, 소설 등으로 현대화하여 출판하거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며, 나아가 여기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또는 3D 영상 등으로 만듦으로써 <화전가>류 등 가사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등)도 워낙 다양해서 사실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주로 스토리텔링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2.2 교육콘텐츠로의 활용

가사를 활용하는 분야로 문화콘텐츠 영역 외에 교육 분야가 있다. 주로 글쓰기 교육, 창의력 교육, 비판적 사고 교육 등에 가사 작품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교육현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가사작품 자체의 작품 분석을 통한 주제나 형식의 파악, 그리고 심미적 특징을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과 어떤 일정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가사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2.2.1 가사를 활용한 글쓰기, 창의력, 비판적 능력 신장

장세진은 고전문학, 특히 가사의 운율적 특징과 거기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여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이를 계승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메타적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⁵⁾

고전문학을 생활화하는 방향을 우선, 당대적 삶을 ‘이해’하고, 과거의 문학을 현재의 삶 속에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의미화’ 작업과 ‘가치발견’을 진행하며, ‘전통의 발견과 계승 및 창조’라는 세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 실천적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 텍스트에 대해 그것을 모방하거나 속성을 적용하고 비판을 하는 글, 또는 대상 텍스트를 패러디한 글이나 비평한 비평문 등을 메타 글쓰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전 텍스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문학 생산과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학습자의 창의력 및 문학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사문학을 분석하여 그 표현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학 속에서 어떻게 계승되어 있는지 파악하거나 또 오늘날 되살려 의미화할 수 있는

5) 장세진, 「고전문학 생활화 실천을 위한 메타적 글쓰기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5.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한 후, 그것들을 ‘모방적 표현으로서의 글쓰기,’ ‘문제발견과 해결로서의 글쓰기,’ ‘문화생산 주체로서의 글쓰기’ 등을 통해 생활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유형은 상호이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단계화될 수 있고, 또 고전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리 응용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는 대상 작품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그 속의 삶과 형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비판하면서 나름의 안목이 생겨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최성아는 가사작품인 송강의 <관동별곡>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⁶⁾

창의성을 ‘새로운 유형·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으로 규정하고 창의성의 요소를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자발성, 독자성, 집착성, 호기심, 변화에 대한 욕구’ 등 10가지로 파악하여 학습자들의 이 요소들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여 이것을 송강의 <관동별곡>에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이 모형은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작자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초점이 옮겨진 것이 기존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홍영선은 기존의 문학의 교수·학습 모형인 ‘반응중심학습모형’을 재구성하여 <우부가>를 대상으로 비평문 쓰기 수업에 맞도록 적절히 변용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능동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문학수업이 기존의 정전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해, 감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시하였다.⁷⁾ 이 과정에서는 교사의 질문과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들은 모두 가사작품을 활용해서 글쓰기 능력, 창의

6)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3.

7) 홍영선, 「문학 비평 교육의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 <愚夫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2.

력, 비판적 능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된 것들이다. 가사의 형식과 내용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메타적 글쓰기를 통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도한 정세진의 방법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가사는 서정·서사·희곡·교술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장르이다. 어떻게 보면 문학이 분화하기 이전의 종합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이러한 가사작품의 학습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적 특성들을 깨닫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장르 규정에 충실한 작품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그 종합적인 성격의 가사작품을 통해 그 각각의 문학적 특징들을 알게 하고 그 특징들이 해당 가사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 그때그때의 심미적인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역동성 중에서 현대화시킬 형식적 내용적인 특징들을 선별하여 교육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글쓰기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비롯해 오늘날 필요한 가치를 찾아내 그러한 것들을 신장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 등을 찾아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2.2 가사를 활용한 한국어 능력 및 문화 이해도 향상

외국인들에게 가사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이은성은 가사 작품인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⁸⁾

우선, <농가월령가>를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등

8) 이은성,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석사 논문, 2010. 2

급표'에 근거하여 초급, 중급, 고급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 각각의 <농가월령가> 텍스트를 마련하고, <농가월령가>에 보이는 월별 농경문화, 세시풍속과 음식문화, 의복문화 등 생활문화,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유교사상 등 문화적 요소를 추출한 후, 이를 활용한 문화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급수에 알맞은 어휘·문법을 사용하여 현대화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그 내용에 알맞은 문화방백(Culture Aside), 문화동화(Culture Assimilators), 문화 캡슐(Culture Capsule), 전신반응교수법(Audiomotor Unit), 기타(신문과 잡지, 웹의 활용/노래의 활용/영화의 활용/만화의 활용/속담이나 격언의 활용/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전통이 담긴 <농가월령가>를 통해 각 월별로 농가에서 하는 일들과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음식 의복 등 생활문화, 우리의 유교사상 등을 교육할 때, 그 전통 중에서 우리의 현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잘 가려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주희와 문복희는 달거리 가사 작품인 <사친가(思親歌)>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⁹⁾ 이들은 이러한 교육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다양한 어휘나 문법을 체험하고 문학텍스트를 감상하며 한민족의 전통적 사상과 풍속을 접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약 74%가 중국인 유학생인데, 이들은 한시구(漢詩句)와 전고(典故) 등이 많은 <사친가>를 읽고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친가>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13장 327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친가>의 매월령을 각각 현대어로 옮긴 지문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 등 한국어 요소를 추출하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상호 연관시켜 교육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 <사친가>에 보이는 달마다의 세시풍속과 문화 요소(음식문화, 의복

9) 주희 문복희, 「가사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3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문화, 효 사상)를 문화방백(Culture Aside), 문화동화(Culture Assimilators), 문화 캡슐(Culture Capsule), 문화 섬(Culture Island), 직감적 반응소(Audiomotor Unit), 문화 퀴즈(Culture Quizes), 민속놀이 그림 보고 이야기 만들기, 전래동화 구연하기, 역할극, 영화보기, 한국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문화 교육법을 적절히 결합하여 문화교육을 실시하며, 다음으로 가사문학의 장르적 특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정서 등 문학적 특징을 다룸으로써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문학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한문 문화권에 놓인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가사 작품이 오히려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고어로 적힌 표현을 올바른 현대어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교육할 때, 역시 에듀테인먼트를 활용한 교육을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적인 시청각 교구 등을 활용한 교육이 시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즈음¹⁰⁾에 다양한 국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이들을 교육할 효과적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선진적인 교육도구들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3 문학치료로의 활용

문학치료적 측면에서 다룬 가사 작품으로는 <화전가>¹¹⁾, <규방가

10) 2014년 10월 11일-12일에 시행된 제36회 한국어능력시험의 총 응시자 수는 6만 8626명이며, 2013년 1월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서 이래 현재까지 135만 725명이 응시하였다.

11)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치료학회, 2005.

사>¹²⁾, <탄식류 규방가사>¹³⁾, <덴동어미화전가>¹⁴⁾ 등이 있다.

이병숙은 가사작품인 <덴동어미화전가>를 문학치료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책읽기를 통한 독서치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문제성을 가진 사람을 책 속에서 발견하는 동일화(Identification), 자기 마음속의 답답함을 소멸시켜주는 듯한 카타르시스(Catharsis), 책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그 문제성을 해결해 가는 모양을 인식하고서 얻은 통찰(Insight)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단계로 진행하는데, ‘치유적 책읽기’와 ‘치유적 글쓰기’를 혼자서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치유적 말하기’는 모임에서 그동안 자신이 읽고 쓰면서 느꼈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즉, 참여자들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치유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에 대해 잘 아는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

<화전가>는 화전놀이라는 공간 속에서 향유된 텍스트로, 이 텍스트에는 화전놀이를 통해서 표출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내적인 욕망과 경험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참여자는 <덴동어미화전가>에 등장하는 덴동어미의 인생역정을 통해 자신을 덴동어미와 동일시하고, 그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어, 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독서치료의 수단으로 우리 가사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때에는 독서치료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12)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연구」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13) 이소영, 「탄식류 규방가사의 문학치료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14) 이병숙, 「문학치료적 측면에서 본 덴동어미의 역할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0.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상담자의 문학에 대한 소양과 인식, 진행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3. 가사의 활성화 방안

가사는 현대에 들어서도 부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¹⁵⁾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와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에서 가사 경창대회, 가사 낭송대회, 가사 창작대회 등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그 활성화의 길을 터놓고 있다. 그리고 계간지 『오늘의 가사문학』이 창간되어 가사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 의미 부여와 새로운 창작 가사를 게재함으로써 가사를 향유하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예광 장성현의 경우처럼 일상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가사에 대한 교육은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을 만큼 다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단절되고 마는 경향¹⁶⁾이 짙으며, 현대에는 다양한 놀이가 많아 실생활 속에서 가사를 즐기는 분들의 전통이 후손들에게 잘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경창의 현장에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좋아할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사 문학이 현대에 활성화되고 그 전통이 미래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보다 그 속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찾아 널리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한

15) 현대의 창작된 가사 목록은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제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참조. 정소연은 예광 장성연(1944~현재)이란 분이 현재까지도 생활경험을 가사로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정소연, 「예광 장성연의 현대가사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화」,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16)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국문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에게서도 비슷하다.

방법이 앞에서 논의했던 문화콘텐츠로의 개발이라고 본다.¹⁷⁾ 그런 면에서 국가지식DB 한국가사문학(<http://www.gasa.go.kr>)에서 2012년에 주최했던 ‘앱공모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크게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교육콘텐츠로의 활용’, ‘문학치료로의 활용’ 양상에 대한 논의들이었다.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송강가사를 포함해 담양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을 엮어 문화콘텐츠로 개발(최한선)’하자는 의견, ‘기행가사를 기반으로 전자문화지도 제작(이형태)’하자는 의견, ‘〈화전가〉류를 뮤지컬, 연극, 마당극 등의 공연이나 화전놀이라는 전통문화와 그 속에 보이는 음식, 의복 등의 생활요소와 같은 콘텐츠를 박물관이나 문학관을 통해 전시하는 방향으로 콘텐츠화할 것을 제안(백순철)’하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교육콘텐츠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가사를 글쓰기(장세진), 창의력(최성아), 비판적 능력(홍영선) 신장’에 활용하자는 의견, ‘한국

17) ‘가사문학이 현대에 활성화되고 그 전통이 미래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이 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보다 그 속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찾아 널리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한 표현은 전통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제성으로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기에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관련된 어떤 가치를 제시했을 때 지속적인 존속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와 담양의 가사문학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가사경창대회, 가사낭송대회, 가사창작대회 등 가사를 향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계간지 <오늘의 가사문학>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을 구현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사경창대회, 가사낭송대회 등에 이 전통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이런 노래나 낭송을 들으면서 실제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학문적으로 진리를 탐구해 들어가는 발견의 즐거움도 있다. 또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 산수를 거닐며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스마트 폰에 빠져 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학생들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한 방법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재미있게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능성을 문화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 능력 및 문화 이해도 향상(이은성, 주뢰·문복회)’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가사 작품 읽기를 통한 문학치료로 활용(이병숙)’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사를 현대 생활 속에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논문들은 아주 적은 편이다. 이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담양이라는 지역과 연계하여 가사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의의에 대하여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김기덕과 신광철은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기술로 구현되는 지식정보에 직간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니, 구체적으로 인문학적 요소를 디지털기술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하이테크)’과 함께 ‘예술-감성(하이터치)’이 요청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은 오늘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속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예술인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니, 소비자들에게 꿈과 감동을 전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안-기획-제작-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꿈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창의성’에 스토리텔링 기술을 더하는 것이니, 이야기는 문화콘텐츠의 생명의 원천이다.¹⁸⁾

문화콘텐츠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문화콘텐츠로 할 것인지를 잘 정해야 하는데, 담양의 경우, 담양군의 현 상황을 잘 분석하여 문화콘텐츠의 콘셉트를 잡는 것이 좋겠다. 콘셉트를 잡는 것은 기획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콘셉트에 맞게 일이 진행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 주체는 담양군이 되는 것이 여러 모로 보아 좋겠다. 콘셉트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지역을 콘셉트로 개발할 경우, 그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18) 김기덕·신광철, 「문화콘텐츠인문학」,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2006. 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은 이 책에 근거한다.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담양군에 대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우선 담양군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한다. 담양군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47,177명(남자 23,753명, 여자 23,424명)¹⁹⁾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 상징물을 보면, ‘태양, 산, 대나무,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담양군의 이미지로 자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담양은 고려 시대부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식영정, 환벽당, 명옥헌, 송강정, 면양정’ 등의 정자, 소쇄원 죽화경 등 정원, 죽녹원, 관림제방, 메타세콰이어길 등 자연 명소, 담양테지움테마파크, 대나무골테마공원, 슬로시티 창평, 송학랜드 등 테마파크, 죽향문화체험마을 등 체험마을, 영화마을, 한국가사문학관, 대담미술관, 대담아트센터, 달피미술관 등 예술 관련 공간, 문화유산(국가지정문화재 15점, 도지정문화재 34점, 문화재자료 18점, 향토문화재 22점) 및 금성산성, 몽성산, 추월산 등과 관련한 설화, 숙종 비로서 영조를 낳은 동이의 이야기, 담양의 평양감사와 죽엽청주 등 설화, 고하 송진우, 하서 김인후, 서하당 김성원, 석헌 류옥, 석천 임억령, 명곡 오희도, 소쇄공 양산보, 녹천 고광순, 제봉 고경명, 미암 유희춘 등 담양의 인물, 이들을 4개의 코스로 나누어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투어 프로그램[제1코스(초록빛 세상투어), 제2코스(담양의 명품투어), 제3코스(가사문학과 정자문화투어), 제4코스(여유를 찾아... 슬로시티투어)], 다도체험, 온천찜질방, 역사·문화체험, 음식문화체험, 농촌생활체험, 야생화 심기체험, 죽제품 제작체험, 비행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담양시장, 창평시장, 대전시장 등 시장투어 프로그램, 담양대나무축제, 담양한우축제, 지역축제(벚꽃축제, 포도축제, 음식축제) 등 다양한 축제 및 상설 공연, 쌀, 한우, 딸기, 멜론, 방울토마토 등 특산물 등의 특징을 담양은 갖고 있다.²⁰⁾

19) 담양군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 이상은 담양군청의 홈페이지(<http://www.damyang.go.kr>) 및 최한선의 상기 논문 참조

이상의 담양에 대한 여러 정보를 분석해 볼 때, 담양이 내세우는 것은 ‘자연’과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한다면, 자연과 인간의 교감, 자연과 (과학)문명, 전통과 현대의 공존, 예술과 놀이의 공존, 관람과 체험의 공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화를 할 때 기본 콘셉트²¹⁾를 잡아본다면, 그것은 ‘힐링(healing)’으로 잡아 볼 수 있겠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휴식 시설, 의료시설²²⁾ 등을 통해 담양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고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²³⁾ 물론 최한선이 시가문학의 음악화 내지는 미술화, 연극화 등을

21) 기본 콘셉트의 개념과 그 사례는 ‘정영복, 『팔리는 컨셉 만들기』(한스컨텐츠, 2008)’ 참조.

22)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4년 현재 담양군의 종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모두 96개소로, 상급종합병원(0), 종합병원(0), 병원(4), 요양병원(4), 의원(23), 치과병원(0), 치과의원(10), 조산원(0), 보건의료원(0), 보건소(0), 보건지소(11), 보건진료소(11), 한방병원(0), 한의원(9), 약국(23) 등이 있다.

23) ‘힐링’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담양을 문화콘텐츠화하는 것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연교감 프로그램, 휴식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해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고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담양을 문화콘텐츠화하면 그 속에서 정말 담양의 가사가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혹 다른 것은 다 누리면서 가사만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힐링’이라는 기본 콘셉트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담양은 가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고 한국가사문학관 등과 함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기획을 할 때 그 연관성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상원 교수는 가사를 활용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 왜 우리는 문학을 알리기 위해 다른 것을 활용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학작품과 그 작품을 쓴 위대한 작가를 알리고 그로 인해 그 고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다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역방향을 언급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좀 더 문학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안했다. 필자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문화콘텐츠화의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화콘텐츠화를 통해 꿈과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문학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문학 자체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원 교수가 언급했듯이,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연구들과 재해석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서 예를 들어 <관동별곡>을 배운 학생들이 <관동별곡>의 여정을 탐방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고 담양을 찾아 작

통해 힐링(치유)과 셰어링(공유)을 제안했지만, 단지 음악, 미술, 연극을 통한 힐링, 마음의 치유를 위한 힐링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양 자체를 ‘힐링타운’²⁴⁾으로 만드는 것이다. 송강가사만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담양군 자체를 문화콘텐츠화하면서, 그 한 축으로 송강의 가사를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컨셉트를 잘 잡아야 한다. 이것은 담양군이 내세우는 비전인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담양’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여기에 ‘담양십경,’ ‘정원 및 누정 투어’ 등 자연 교감 프로그램, 4개의 코스로 나누어진 버스투어 프로그램, 역사적 인물과 그 사상이나 유물 유적 등을 돌아보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등 앞에서 제시한 담양의 여러 특징들을 ‘힐링’을 기본 컨셉트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교감’, ‘자연과 (과학) 문명’, ‘전통과 현대의 공존’, ‘예술과 놀이의 공존’, ‘관람과 체험의 공존’을 주제로 재편하여 각 주제별로 프로그램들을 구체화하고, 각 주제별 연관성을 만들어 각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기획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화하여 공연 등 문화체험의 장으로 만들거나 이형대가 제안했던 ‘전자문화지도’로 구축함으로써 원하는 주제를 검색

가 정철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구자가 꿈꾸는 이상’이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야겠지만, 이 문제는 이상원 교수가 언급한 연구자들의 연구에의 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적 상황과 인식이 변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등 교육적 가치가 있는 체험활동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연 7일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여 가족 여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고,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입시라는 시험 제도 때문에 더더욱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의 의식도 아직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러한 관련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24) 이 경우, 담양군 내 자체 요양기관의 의료시스템의 협력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있는 인근 지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전라남도의 2014년 종별 요양기관의 현황은 모두 3,211개소로, 상급종합병원(1), 종합병원(22), 병원(80), 요양병원(62), 의원(893), 치과병원(6), 치과의원(426), 조산원(4), 보건의료원(3), 보건소(19), 보건지소(215), 보건진료소(329), 한방병원(18), 한의원(350), 약국(783) 등이 있다.)

을 통해 찾고, 각 주제의 프로그램들을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느끼는 가상체험 및 현장에서의 비교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3D(5D)로 만들어 3D(5D) 체험관을 통해 상영한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재미와 힐링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한국가사문학관의 경우, 가사 작품 및 작가 연구를 위주로 하되, 담양의 역사, 인물, 유물유적, 호남의 성리학 등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집적과 연구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밝히고, 그것을 현대화하고 콘텐츠화해 나가야 하겠다. 이의 한 방향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과 맞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공감하고 화합하며 인륜을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를 현대인들이 자각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사 작품에는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당시 다양한 향유층들의 개인적 집단적 삶의 경험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에 재미적 요소를 더한 에듀테인먼트로 개발하여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오늘날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 각종 스마트 기기들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교육적 설계를 치밀하게 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면 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닌텐도DS처럼 오늘날은 성인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기능성게임 등에서 에듀테인먼트의 접목을 시도한다고 한다. 이러한 예로, 미국 국무부에서 외국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미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트레이시 이팩트’라든가,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이 식량원조 및 구호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푸드 포스(Food Force) 등이 모두 기능성게임이라고 한다.²⁵⁾

즉,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주제를 기능성 게임으로 만들어 담양과 그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자연과 문화의 소중

25) 이순민, 「가장 훌륭한 교재(교육&재미), 에듀테인먼트,」 『창조산업과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6.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사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심미적 감상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며, 또 가사를 활용한 다른 역량의 신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은 비단 학교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담양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관련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한국가사문학관에 설치하여 교육적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담양군은 현재의 의료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을 유치하여 이들을 상호 연계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연계시키면 담양을 ‘힐링’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담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교감, 자연과 (과학)문명, 전통과 현대의 교감과 공존, 예술과 놀이의 공존 관람과 체험의 공존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한국가사문학관이 담양군과 협력하여 나간다면 담양이 ‘힐링’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 대학의 지역문화연구소, 지역의 문화원,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최한선이 지적했듯이, 문화콘텐츠화를 시도하되, 지역민이 지역에 거주하는 존재의의를 살리고 그들을 고품격 삶으로 인도하며 주민의 자긍심과 의지를 한 데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양을 문화콘텐츠화할 때, 그들의 삶이 한 데 어우러지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는 데, 경주 양동마을의 운영 방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양동마을은 경주시 북쪽의 설창산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500여 년을 존속해온 반촌으로서 200년 이상 된 고가 54호가 보존되어 있는 조선 중기 이후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나라 전통가옥구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월성 손씨 종가인 서백당과 여강 이씨 종가인 무첨당 등 양반 주택들과 하인들이 살았던 초가집, 정자와 강학당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마을이다.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해 자신들이 집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분들의 의식이 스스로 옛 가옥을 보존한다는 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들이 영남의 유학적 전통을 이어간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아울러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담양을 문화콘텐츠화 할 때,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어떻게 지니도록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담양군이 추구하는 가치와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담양에는 고하 송진우, 하서 김인후, 서하당 김성원, 석헌 류옥, 석천 임억령, 명곡 오희도, 소쇄공 양산보, 녹천 고광순, 제봉 고경명, 미암 유희춘 등 담양의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인물들과 관련된 문화재, 관련 자료도 많이 담양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들의 후손들 중에서 선발하여 그들에게 이것들을 관리하게 하고(물론 담양군과의 협조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그것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²⁶⁾하면 그 후손들이 자긍심도 가지면서 만족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담양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들로 하여금 각 주제에 관련된 문화 행사를 담양군과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그 일정한 비용을 담양군에서 지급하게 되면 행사의 내용도 충실해지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문화단체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요즘은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이 추세이니만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담양군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배출하는데, 담양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배정을 하여 이들을 담양에서 활동하게 한다

26) 이들에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이러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듯하다.

면, 다른 지역민 또는 외국인 환자들의 유입도 용이해지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들의 만족도가 높으리라 본다.

4. 마무리

지금까지 가사작품이 현대에 활용되는 모습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본적으로 가사를 현재의 생활에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그 활성화의 경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한 방향으로 문화콘텐츠로의 개발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 있는 가사 작품만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보다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콘셉트를 잡아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사를 다루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담양’의 경우는 현재 담양이 추구하는 모습(‘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담양’라는 비전)을 보나 전통적인 측면을 보나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힐링’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현재 있는 담양의 자원들을 자연과 인간의 교감, 자연과 (과학)문명, 전통과 현대의 공존, 예술과 놀이의 공존, 관람과 체험의 공존 등의 주제로 재편하고, 지역 의료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주제를 기능성 게임으로 만들어 담양과 그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서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담양이라는 지역, 문화, 전통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담양의 인물들의 후손들 중에서 선발하여 현존하는 담양의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관련 자료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물론 담양군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이들에게 지역 대학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둘째, 담양에서 활동하는 문화 단체를 담양군과 함께 문화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안. 셋째, 담양군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학생 위주로 국제의료문화관광코디네이터를 배출 후, 담양에 근무케 하는 방안 등이다.

학문적으로 가사의 자료를 집적하고 그것에서 현재적 가치를 개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사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사에 대한 향유가 학교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겠다. 모든 국민이 가사에 열광할 리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시조처럼 적어도 일정하게 가사를 향유하는 계층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의 표현수단을 하나 더 갖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오랜 우리의 전통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2006.
- 정영복. 『팔리는 컨셉 만들기』. Hantz. 2008.
- 김학성.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문학과지성사. 1983.
-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치료학회. 2005.
-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연구」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고시가연구』 제 34권. 한국고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 이병숙. 「문학치료적 측면에서 본 덴동어미의 역할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0.
- 이소영. 「탄식류 규방가사의 문학치료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순민. 「가장 훌륭한 교재(교육&재미). 에듀테인먼트」 『창조산업과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6.
- 이은성.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석사 논문. 2010. 2
- 이형대. 「기행가사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구축과 그 활용 방안」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학회). 2014
- 장세진. 「고전문학 생활화 실천을 위한 메타적 글쓰기 방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5.

- 정소연. 「예광 장성연의 현대가사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화.」 『청
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 주뢰 문복희. 「가사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
아시아문화연구』 제31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 최성아.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 정철
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3.
- 최한선. 「송강 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제33집. 한
국고시가학회. 2014.
- 최혜진. 「가사문학의 향유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제32
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 홍영선. 「문학 비평 교육의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 <愚夫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2.

<Abstract>

Util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gasa(lyrics)

Kim, Byung-kuk

Based on a review of the relevant research, this paper presents an approach to the current usage and possible revitalizing ways of using Korean gasa(lyrics).

A review of the research on gasa suggests its us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teaching of writing, learn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literature therapy. For the gasa tradition to succeed in today's world,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how its value for contemporary society, rather than insist that it is our duty to keep the tradition. One of the ways to see its value is to develop it as a part of cultural contents. It is recommended that regional Gasa not be used simply as a subject of cultural education, but to develop the region as a basic concept and formulate the regional gasa a part of the cultural contents. In consideration of the values and traditions of Damyang, healing of mind and body need to be set as a basic concept in the communication between nature and people, as well as in the coexistence of nature with science, the past with the present, art with entertainment, and observation with experience. This consideration also requires that the local people be infused with pride in the region and its culture and traditions.

The continued collecting of gasa and finding its current value as well as making it easy for local people to access this literature are all

necessary. Currently, gasa is used mostly in teaching writing, creativity, and critical though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it as a part of edutainment relating to cultural contents and to create a climate to keep works of gasa in reality, rather than restricting them to the classroom. As in the case of sijo, gasa needs a certain class of people today. Gasa also provides a significant, additional way of expression stemming from our traditional culture.

Key words : Gasa, Utilization patterns, Revitalization, Cultural Content, Edutainment

투고일 : 2015년 1월 13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